

나우로보틱스, 자본잠식 리스크 감수한 적자기업 인수

f t 박준우 기자 2026.01.16 11:18



| 한양로보틱스 M&A로 캐파 확대 기대…재무 부담은 숙제

[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 '나우로보틱스'가 전환사채(CB)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인수합병(M&A)에 나섰다. 인수 대상 기업이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즉시 활용 가능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인수 대상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향후 흡수합병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재무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많이 본 뉴스

- 1 이상명 삼성바이오 상무 "CDC…" [2026.01.16]
- 2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 "ABL…" [2026.01.16]
- 3 알테오젠 "ALT-B4 추가 기술…" [2026.01.16]
- 4 지배구조 TF 첫 회의부터 '차관…' [2026.01.16]
- 5 AI 등에 업고 질주, TSMC 순0 [2026.01.16]
- 6 휴젤, 글로벌 에스테틱 선도기… [2026.01.16]
- 7 지배구조 선진화 vs 관치…금… [2026.01.16]
- 8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신약…' [2026.01.16]
- 9 한화 막내가 쏘아 올린 독립 신… [2026.01.16]
- 10 디앤디파마텍 "DD01 계열 내… [2026.01.16]

기업회원 전용 유료 미디어
DealSite Plus
이제 개인 투자자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는 "정보싸움"입니다.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구독
정보싸움에서 앞서가세요!

Issue Today

신탁사와 모기업	제약바이오
• '밀 빠진 득' 모회사 투…	• 세트리온…
• 4천억 잠재손실 내재…	• HK이노…
• 모기업 도움 없이 자생…	• 휴온스, 신…
3N2K 실적전망	메자린
• 카카오게임즈, 신작 러…	• 드림시큐리…
• 크래프톤, '배그' 파워에…	• 무이자로…
• 넷마블, 수익성 개선 확…	• 예스티, 기…

Editor's Choice

	우리·베일리PE, 두… 0억 전액 에쿼티 투… #현대제철 #현대IFC
	대동그룹, '4세 승… #대동그룹 #대동 #…

추천키워드
 #나우로보…
 #한양로보…
 #인수합병
 #수익성
 #자본잠식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우로보틱스는 최근 강종원 대표 등 한양로보틱스 주주 105명으로부터 구주 605만8658주(지분율 93.37%)를 75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양도 예정일은 이달 30일로, 별도 계약금 없이 양도 일에 잔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인수대금은 CB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한다. 앞서 나우로보틱스는 CB 발행을 통해 총 330억원을 조달했다.

#카카오게임즈 #말할

 알테오젠 "ALT-B4 전 임박"
 #알테오젠 #전태연

 지배구조 선진화 v: 원, 특별점검 '선전 #금융감독원 #금융위

실시간 속보 >
 랭킹뉴스 >

나우로보틱스, 한양로보틱스 지분 인수 개요

- 양수 주식수 605만 8658주
- 양수 후 지분율 93.37%
- 양수 금액 75억원
- 양수 예정일 1월 30일
- 양수 목적 생산능력 확충
- 자금조달방법 CB 발행

DealSite

자료: 금융감독원

나우로보틱스, 한양로보틱스 지분 인수 개요. (그래프=김민영 기자)

양수 주식 가운데 189만3600주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다. 나우로보틱스는 해당 RCPS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한 뒤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래 완료 시 총 187 9만119주를 보유하게 되며, 지분율은 기존 93.37%에서 99.96%까지 높아진다. 잔여 주주 지분이 극히 제한적인 만큼 사실상 한양로보틱스에 대한 지배력은 완전히 확보하게 된다.

나우로보틱스가 한양로보틱스 인수를 결정한 배경으로는 양사의 사업 영역이 동일하다는 점이 꼽힌다. 나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한양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신규 설비 투자 없이도 기존 생산시설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투자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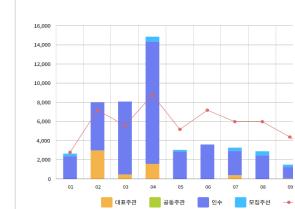
특히 한양로보틱스의 연간 생산능력(CAPA, 캐파)은 약 1000억원 규모로, 나우로보틱스의 기존 캐파(약 300억원)를 웃돈다. 여기에 나우로보틱스가 인천 남동공단에서 건설 중인 2공장이 완공되면, 통합 기준 총 캐파는 약 23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우로보틱스는 2025년 5월 해당 부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2공장 건립에 착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주가 오른 지금이 적기…나우로보틱스, 상장 8개월 만에 C… · 이상명 삼성바이오 상무 "CDO도 기술 초격차 박차"

반면 이번 인수는 수익성 입증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긴다. 한양로보틱스가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만큼, 재무 부담이 나우로보틱스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우로보틱스는 기술특례상장사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지정 요건에서 5년간 유예를 받고 있지만,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에는 해당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Infographic News



유상증자 월별 수수료 수입 (공시=

추천키워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엔씨소프트

NAVER

나우로보틱스

* 2025년 3분기 기준

· 매출	75억원
· 영업손실	58억원
· 순손실	59억원
· 영업손실률	77%
· 순손실률	79%
· 현금성자산	67억원
· 결손금	140억원
· 자기자본	184억원
· 부채총계	184억원
· 자본총계	367억원



한양로보틱스

* 2025년 3분기 기준

· 매출	102억원
· 영업손실	31억원
· 순손실	44억원
· 영업손실률	31%
· 순손실률	43%
· 현금성자산	4억원
· 결손금	250억원
· 자기자본	-226억원
· 부채총계	411억원
· 자본총계	185억원



DealSite

자료: 금융감독원

나우로보틱스·한양로보틱스 주요 재무 현황. (그래픽=김민영 기자)

나우로보틱스는 한양로보틱스 인수 이후 흡수합병까지 검토하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양로보틱스의 실적이 나우로보틱스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다. 2024년 말 기준 한양로보틱스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2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같은 시점 나우로보틱스의 자본총계가 18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합병 이후 나우로보틱스 역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럼에도 나우로보틱스가 흡수합병을 염두에 둔 것은 추가 자금 수혈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입금이나 대여금과 달리 유상증자는 자본 확충 효과가 있어 자본잠식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실제로 나우로보틱스는 CB 발행 과정에서 50억원을 운영자금이 아닌 기타자금으로 분류하고, 이를 인수 기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이 유상증자 형태로 한양로보틱스에 투입될 경우, 단순 계산 시 한양로보틱스의 자본총계는 -176억원 수준까지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병 이후에는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자금 수혈로 올해 말 결산보고서상 자본잠식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자가 지속될 경우 자본잠식 부담은 다시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나우로보틱스와 한양로보틱스 모두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나우로보틱스는 2025년 3분기 기준 5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양로보틱스는 31억원의 적자를 냈다.

나우로보틱스 관계자는 "인수 과정에서 단순 기술력 외 한양로보틱스의 생산시설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며 "특히 한양로보틱스가 1997년에 설립돼 업력도 오래됐고,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매출처 확대 등 영업적 측면에서의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majacgood@dealsite.co.kr

구분	모집방법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표면금리	만기수익률	발행가액	발행주수
CB	사모	나우로보틱스 2	2026-01-14	2031-01-14	33,000	0	0	22,142	1,490,380

[Deal List 더보기](#)

많이 본 뉴스

2026-01-19

- | | |
|---|---|
| <p>1 이상명 삼성바이오 상무 "CDO도 기술 초격차 박차"</p> | <p>2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 "ABL001로 열티 수령 가시화"</p> |
| <p>3 알테오젠 "ALT-B4 추가 기술 이전 임박"</p> | <p>4 지배구조 TF 첫 회의부터 '차관 주재'… 은행지주 겨눈 금융당국</p> |
| <p>5 AI 등에 업고 질주, TSMC 순이익 35% '잭팟'</p> | <p>6 휴젤, 글로벌 에스테틱 선도기업 도약 '출사표'</p> |
| <p>7 지배구조 선진화 vs 관치…금감원, 특별점검 '선전포고'</p> | <p>8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신약·LLM·자동화' AI 전략 3대 축"</p> |
| <p>9 한화 막내가 쏘아 올린 독립 신호탄</p> | <p>10 디엔디파마텍 "DD01 계열 내 최고 가능성 확인"</p> |

[Show more ▾](#)

ISSUE Today

딜사이트 플러스가 주목하는
오늘의 이슈를 확인하세요!

[전체보기](#)

신탁사와 모기업

- '밑 빠진 독' 모회사 투입 자본 '증발'
- 4천억 잠재손실 내재…자체 대응 역부족
- 모기업 도움 없이 자생력 '입증'

제약바이오 투자 핵심

- 셀트리온, '신약' 주도 외부투자 드라이브
- HK이노엔, '케이캡' 벡스트 공략지 일본 정조준
- 휴온스, 실리주의·리스크 분산 노림수

3N2K 실적전망

- 카카오게임즈, 신작 러시로 26년 반전 모색
- 크래프톤, '배그' 파워에도 여전한 단일 IP 리스크
- 넷마블, 수익성 개선 확인…26년은 신작 검증의 해

섹션뉴스

Deals 산업 IPO 제약·바이오 건설·PF Investor



기자수첩 한화 막내가 쏘아 올린 독립 신호탄

한화그룹이 최근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는 (주)한화의 인적분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시장의 시선은 단순한 지배구조 개편을 넘어 오너 3세의 향후 경영 구도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할을 통해 한화가(家)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의 사업 영역이 처음…

2026.01.16 08:39

현대IFC M&A 우리·베일리F

2026.01.16 06:30

저평가에 베팅한 한국렌탈

2026.01.15 16:50

본 사이트는 투자권유나 종목추천을 하지 않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의 최종 책임은 본 정보를 열람하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의 행위는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ealSite Plus

(주)딜사이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375 등록일: 2014.10.23 제호: 딜사이트플러스 발행/편집인: 이승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진철 발행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총정타워 14층 유료 서비스 문의: 02-6952-0368, 02-6952-0385 대표번호: 02-6952-0384 FAX: 02-6952-0387

사업자번호: 794-87-0122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3-서울서대문-0500호

Copyright © (주)딜사이트, All Rights Reserved.